

국헌공 권칙權弼에 관한 실기자료 【9】

작품 해설

떠날 때 홍태시는 손수 금인 金印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강홍립은 이를 받아 그 새긴 문자를 보고 대희하여 무릎을 꿇고 ‘이는 대사大事이니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삼가 사직社稷을 받들어 따르고 여의치 못하면 강화만이라도 이루는 것으로 죽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소씨녀가 옷자락을 잡고 올라 ‘잠시 기다리면 마땅히 왕비로 맞겠다’ 하여 달랐다. 한운이 ‘저와 영공은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었으니 이번에 모두 복수하자’ 하니 강홍립은 ‘내가 밤낮으로 절치부심하던 바 바면서 호장胡將에게 ‘이번 출병에는 먼저 위엄을 보여야 하니 살략殺掠을 크게 행하여 왕경王京의 서쪽이 유린되어 공허하게 한 연후에야 화친해야 할 것’이라 하니 호장이 ‘살략하고 횡행하는 것이야 우리 군사의 능사이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정묘년丁卯年(인조 5, 1627년) 봄 야간에 의주를 습격해성을 함락하니 뜻밖의 변란에 백성이 사산했다. 강홍립은 호병에게 8면을 에우게 하고 모조리 도살케 했다. 칼날이 난무하며 붉은 피가 치솟고 사람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데 어린애는 몰아쳐 잡아 빈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아 죽이니 그 울부짖는 소리가 시각이 지나서야 잦아들었다. 거꾸러진 시체는 참나무 꼬챙이로 등에서 배를 관통해 땅에 박히고 그 잔혹상은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었다. 성안의 사내는 노소에 관계없이 죽고 부녀자와 재물은 남김없이 약탈되었다. 호장

이 ‘죽인 바가 많으니 그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강홍립이 ‘아니다. 이곳에서 떨어진 안주安州와 평양은 큰 진영이다. 동국에서 나가고 물러감은 오직 내가 지휘하니 병사는 엄습하고 죽이도록 지휘하라’ 하였다.

능한성凌漢城에 이르러 성이 대항도 못하고 떨어졌는데 호병이 에우고 조여 흠어져 달아나던 백성이 독안에 들어. 성안에 가득하던 사람들이 잠깐에 도륙되니 그 참혹함을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청천강淸川江 서안에 이르러 호장이 ‘두 곳에서 살륙한 것이면 위엄을 보이기에 죽하니 안주에 사람을 보내 강화함이 좋겠다’ 하니 잠시 시험해보겠다면서 수하 박난영을 안주로 보내 성문 앞에서 크게 소리쳐 강화의 뜻을 전하게 하였다. 이에 안주의 절도사節度使 남이흥南以興이 병마후후兵馬虞侯 박명룡朴命龍을 문루로 올려보내 ‘목을 자르는 장군은 있어도 화의를 하는 장군은 없다’고 답하게 했다. 강홍립이 분연히 노하여 ‘조선이 아직도 뉘우치지 않으니 다시 도살해야겠다’ 하고 군사를 몰아 동북쪽 모서리에 서부터 함락시키니 절도사 남이흥은 목사牧使 김준金浚과 함께 군루軍樓에 앉아 분신焚身했다. 성안에 가득한 백성은 노소를 불문하고 울부짖으며 달아나 숨는데 강홍립은 한운과 함께 호병을 나누어 독려해 풀을 베듯 살상하여 시체가 거리를 메우고 유혈이 도랑을 이루었다. 이때 강홍립과 같은 마을 출신자가 경포수京砲手로 성을 지키던 중에 마침 강홍립

이 말을 달려 추살追殺하는 것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서며 부르짖었다.

“사또는 조선의 대인大人이 시어늘 어찌 살륙을 금하지 않으시오?”

강홍립이 ‘내가 동향인의 옛정이 없으면 감히 말고땀을 잡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구족이 몰살되어 돌아와 복수하거늘 어찌서 금하겠느냐’ 하니 경포수가 깜짝 놀라며 ‘이 무슨 말씀이요? 대부인께서 천수를 누리고 고종考終하신 게 수년이고 남은 사람들이 다 무양無恙하니 헛소문을 듣지 마시오’ 하니 강홍립이 의아하여 ‘그런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 사람이 ‘사또의 숙부 진창영감晉昌令監(진창군晉昌君 강인姜綱)은 지금 조정에 사환仕宦하시고 사또의 윤자胤子(말아들)도 옛집을 보전하고 있으니 하물며 기타이겠소이까’ 하니 비로소 강홍립이 두려워하며 ‘한운에게 팔려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고 호장을 급히 불러 면사기免死旗를 올려 살륙을 그치게 하였다. 강홍립은 한운을 크게 꾸짖고 절교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강홍립의 호군胡軍이 이르는 평양과 황강黃崗 등지에서는 적의 기세를 보고 미리 달아나 사망에 사람이 없었다. 이를 기뻐하며 강홍립은 ‘이번의 거병으로 팔도를 횡행해도 거칠 게 없겠다’ 하였다. 평양에 들어와 강홍립이 사망의 문에 방榜을 붙이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팔도도원수를 겸한 금국대장군金國大將軍 강홍립은 부로父老와 군민軍民 및 문무의 산

치인散置人에게 타일러 이른다. 이번에 대군으로 백성을 위해 토벌하는 것은 본시 편안히 순종케 하고자 함이니 두 마음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논발갈고 누에치기 힘쓰라. 산림이나 마을 사이에는 반드시 재주를 지니고 펼치지 못하며 공명功名에 뜻이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 한 때를 만나 정녕코 스스로 사납고 민첩해 지고자 한다면 원근이 한 소리로 일제히 응하라.”

강홍립은 이 방榜으로 재능인이 다투어 모여들 줄 알았으나 며칠이 지나도 무반응이자 ‘조선인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찾아 이르는 호걸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니 한운이 곁에서 손뼉을 치며 ‘어리석구나, 홍립이여. 어찌 사람을 삼대 베듯 죽이고서도 그림자처럼 따르기를 바라는가’ 하였다. 이에 강홍립이 노하여 ‘살인은 내 본심이 아니라 다 네가 시켜서 한바이다. 다만 한수漢水를 말에게 먹인 뒤에야 대사가 정해질 것이다’ 하고 박난영의 아우 박규영朴葵英을 평양성 수비대장을 삼고 군사를 나누어 머물러두고는 진군하여 황해도 평산平山에 이르니 오래 비가 내려 진창이 되어 더 나가지 못했다.

한편 조선 조정에서는 강홍립이 군권을 마음대로 함을 알고 그 숙부 강인을 의논에 참여시켜 기미책羈縻策을 삼고 원수 장만張晩도 그에게 강홍립에게 주는 서신을 들려 보냈다. ‘인경仁卿(강인의 자) 형제는 관작이 전과 같고 오직 대부인만 불행히 되시었을 뿐’이라는 서신을 보이며 강인은 강홍립을 만나 그 만행을 꾸짖고 낙루하며 말했다.

“부모의 나라는 배반할 수가 없고 후제后帝의 내려다보심이 지엄하니 조정으로 돌아와 속죄를 도모함만 같지 못하다.”

강홍립이 속으로 두려워 밤에 사람을 시켜 금도장을 강에 버리게 하고는 ‘대계大計는 꿈이 되고 일신에 재앙만 쌓였다고 탄식했다. 마침내 강홍립이 오랑캐장수를 보내 임금의 행재소行在所를 왕복하며 화호和好를 맺고는 후금군을 물러가게 하니 이는 홍태시의 본의였다.

강홍립은 호장胡將에게 조선에 남아 조선이 금을 중히 섬기게 하겠다고 작별하면서 좌우에 노략한 미인과 재화를 마음껏 가지고 있는 한운에게 ‘당초에 조선에 들어와 부녀와 재화를 얻으면 같이 나누기로 약조했는데 내가 잠시 머물지만 결국에는 서쪽으로 갈 것이니 거기가 홀로 지내는 소녀蘇女에게 그 반을 주어 나를 기다리게 하면 정녕한 약조를 네가 지키고 나를 배반치 않게 될 것이라 하니 한운이 눈을 부릅뜨고 ‘네가 먼저 약조를

버리고 나와 절교하고 어찌 나더러 지키라 책하느냐. 네 어리석어 지금 낙국樂國을 버리고 조선에 이끌리지만 다른 날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하고 후회할 것이라 꾸짖었다. 그 말에 강홍립은 다시 흔들려 돌아가고 싶었으나 숙부 진창군晉昌君이 당기고 후금의 장수도 잔류하기를 바라므로 하는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행재소에 온 강홍립은 후금과 화친하고 군사를 돌린 공이 자기에게 있음을 과시하니 임금이 애써 위로하며 ‘경은 추지芻地에 있는 게 오래인데 어찌 홀아비 모습인가’ 하고 물으니 강홍립이 일어나 절하고 ‘신이 욕되게 오랑캐 조정에 있으면서 스스로 죽어 없어지지 못했사오나 어찌 감히 음란하고 방종하여 몸의 허물을 무겁게 하였사오리까’ 하였다. 이때 생원生員 윤형지尹衡志가 극언으로 ‘투항한 죄는 비록 거슬러 궁구치 못하더라도 살륙한 죄는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몽진蒙塵(강화로 피난)한 분을 조금이라도 씻으소서’ 하고 간하니 그 말뜻이 격절하여 듣는 이가 쾌하다 하였다.

강홍립이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옛 우물을 찾으니 눈길이 닿는 것이 다 감회가 엇갈려 가슴이 막막한데 만조백관 중에는 안부를 묻는 자가 없고 친척과 벗은 서로 계칙戒勅하느라 간과함이 없었다. 부모 산소에 성묘코자 하니 숙부 강인이 꾸짖어 ‘네가 이륜彝倫을 등지고 조선祖先을 욕되게 하면서 오랑캐에게 항복한 짐승으로서 무슨 면목으로 다시 부모의 언덕에 오른단 말이나. 형수씨가 한 부녀로서도 작별에 임하여 무어라 하셨더냐. 네 옛글을 읽어 더욱 의리를 알 것이어늘 자친께서 구천에서 눈을 감지 못하심을 홀로 모른단 말이나’ 하니 그 양심이 격하게 깨우쳐 일어나 죽고 싶은 지경이었다.

또 충렬록忠烈錄을 가지고와 보여주는 이가 있어 강홍립이 김장군전후서金將軍傳後敍를 읽다가 ‘연년延年是 싸우다 죽었으나 이교위李校尉는 구차히 살았으며 사목司牧도 진중에서 죽었으나 조경종曹景宗은 무양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책을 덮고 한숨지었으며 또 책속의 화본畵本에 김응하는 홀로 서서 혈전을 다해 사절하는데 강홍립과 김경서는 호장의 계하에 무릎꿇고 엎드려 절하고 그 옆에 병기와 갑옷이 산같이 쌓여 있어 지난 사적이 눈앞에 확연하니 그 낮은 흙빛이 되고 오장은 깎이는 듯했다. 또한 권말을 보니 칠언近體詩 두 수가 있는데 제목이 조항로원수嘲降虜元帥(오랑캐에게 항복한 원수를 조롱함)였다. 강홍립은 그 시를 다 읽지 못하고 ‘사람들 말

亞始祖 낭중공 청도 춘향 안내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의 단소壇所에서 행례하는 안동권씨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郎中公의 기축년己丑年 춘계향사春季享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뜻있는 후손의 참례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4월 22일(수요일·음력 3월 27일 丁酉)09시~12시

행사과정 : 운문면 봉하리 봉암재사鳳巖齋舍에서 09시 집사분방執事分榜, 10시 제물봉 奉祭物奉送, 11시~12시 단소 행례.

연락처 : 안동 태사묘太師廟 서재西齋 054) 857-7715

서울지역 : 종보사 서울분사, 종로구 필운동 사직공원 앞에서 4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출발하는 승합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4월 20일까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02) 723-4480이고 여비는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종보사